

**제목 Theme: 문둥병자 열 명 Ten Leprous**

**본문 Scripture: 누가복음 St. Luke 17:11-19 절**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While He was on the way to Jerusalem, He was passing between Samaria and Galilee**

**12.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As He entered a village, ten leprous men who stood at a distance met Him;**

**13.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and they raised their voices, saying,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14.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When He saw them, He said to them, "Go and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And as they were going, they were cleansed.**

**15.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Now one of them, when he saw that he had been healed, turned back, glorifying God with a loud voice,**

**16.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and he fell on his face at His feet, giving thanks to Him. And he was a Samaritan**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Then Jesus answered and said, "Were there not ten cleansed? But the nine-- where are they?**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Was no one found who returned to give glory to God, except this foreigner?"**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And He said to him, "Stand up and go;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에서 열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치료를 받고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은 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할 때 진정한 영적인 축복 즉 구원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 내용을 살펴 보기 전에 이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본 장 **1 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족(**Stumbling**)이라고 하는 것은 ‘발부리에 걸리다’ 라는 뜻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나 사건 또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실족은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간이 살아 가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화가

있지만 이것에 대하여 잘 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1 절). 그러므로 2 절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매우 심도 있는 말씀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작은 자”는 “예수님 편에 구원을 받을 자”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 장 31 절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같이 하여 라는 비유에서 예수님 편에 있는 “양” 즉 구원 받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원 받을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자는 스스로 자살하는 것이 나으리라 고 하신 내용에서 지옥에서도 고통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즉 자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살을 부추기시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가 성도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2 절). 그러므로 3 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repents)와 용서(forgive)”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네 형제”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라고 하신 내용에서 “경계하라”라는 의미는 “꾸짖어 주다”(rebuke)라는 말로 그 죄에 대하여 외면하지 말고 지적해서 용서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3 절). 4 절에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돌아와 일곱 번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용서의 원리가 우리 성도와 우리 주님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실천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 장 44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에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절에서 이때 사도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 드렸습니다(5 절). 그럼 어떻게 하여야 믿음을 더 세우고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6 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거시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겨자씨 한 알은 씨앗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앗에 속하지만 순수한 씨앗이라면 그 씨앗이 겨자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즉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순수한 “믿음”(faith)을 말씀하시면서 “순종”(obey)을 말씀하셨습니다(6 절).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말씀 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 절부터 이 믿음과 순종은 곧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종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쉬며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고(7 절), 주인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주인이 다한 후에 종이 먹고 마시고 쉴 것이며(8 절) 그렇다고 주인이 “종에게 사례하겠느냐”(9 절)라고 하셨습니다. 즉 ‘종은 주인에 대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신실한 제자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신실한 사역자의 모습을

이렇게 교육하십니다. **10 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10 절**).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고 칭찬 받는 사역자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명령과 순종”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사역자,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명령과 순종” 그리고 “믿음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1 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그곳에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열 명의 문둥병자는 사람들 속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문둥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전염이 되거나 보기에 흉하기 때문에 격리 되어 가족이라도 함께 살지 못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촌은 문둥병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버림을 받았고, 사마리아에서도 버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즉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함께 살지 못하지만 이곳 즉 버림 받은 사람들은 서로 모여 이 촌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촌에 모두 몇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열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높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13 절**). 예수님을 주(Lord)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한국어 성경에서는 번역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으로 주(Master)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자신들의 문둥병을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더니 그들은 명령에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 때문에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 가는 중에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14 절**). 이것이 명령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랬더니 열 명 중에 유대인이었던 아홉 명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 갔을 것이고,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 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치료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진정한 제사장이 예수님 이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돌아오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 왔다”**는 것입니다(**15 절**). 하나님께 돌아 오는 것(Return to God)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회개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는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다고 말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셨습니다(**16 절**). 그리고 **19 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인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약속 받았다는 것입니다(**19 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영생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돌아 오지 않는 아홉 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질병은 치료를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영적으로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 교회에도 많이 있는 형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12 절)

- 1 몇 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주(**Master**)로 알아 본 사람은 열 명이었습니다. 반드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 누가복음 **18:38** 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마가복음 **10:47** 절) – 다윗이 자손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 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의 세계라”
2.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 오신다는 것입니다 – 갈라디아서 **1:4** 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3. 예수님께서서는 차별하지 않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 로마서 **3:22** 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둘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4 절)

- 1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이므로 성경의 읽고,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 요한복음 **5:39** 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 디모데후서 **3:16** 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2. 믿음은 순종 즉 실천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 야고보서 **2:22** 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3.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구원을 약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디모데전서 **4:16** 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복음사역)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시리라”

셋째,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18 절)

- 1 예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 시편 **50:23** 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 예수님께 대한 감사는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 에베소서 **5:20-21** 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라”
3.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골로새서 **4:2** 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